



미국 관세 협상 타결은 북미 LNG 프로젝트 활성화로 이어진다

조선 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치수 소수점 하락. LNG선 신조선가 5주 연속 하락

① 신조선가치수는 소수점 하락했고, LNG선이 250백만달러로 5주 연속 하락했고, 13~15k-TEU와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도 하락했습니다.

▶ 그러나 LNG선 발주 곧, 그리고 미국 관세 협상 덕

② Venture Global의 CP2(28MTPA)는 6월에 FERC 최종승인을 득하고, 7월에는 이탈리아 eni 장기공급계약(2MTPA)을 추가하고, 지난주 드디어 FID(최종투자결정)를 내렸습니다.

이제 곧 한국 조선사들과 협의 중인 180k-CBM 12척을 발주하는 수순입니다. LNG선 발주가 곧 시작됩니다.

③ 한국보다 먼저 EU가 미국과 관세협정을 마쳤는데 탱커와 LNG선 시장에 호재로 해석됩니다. EU는 향후 3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달러 구입하기로 했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상 수송량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LNG 터미널들도 빨라집니다.

▶ 컨테이너선 미국 발주

④ 프랑스 CMA CGM이 울트라막스 LNG D/F 12척 발주를 조선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한국은 250백만달러, 중국은 230백만달러를 부르는데, 중국 Hengli는 무려 207백만달러를 제안해서 화제입니다. 미국-중국 긴장감에 과연 CMA CGM이 또 중국을 선택할지가 관심입니다.

⑤ 프랑스 CMA CGM은 올해 3월에 미국에 2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최근 미국에 선박 발주를 추진 중으로 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울트라막스는 중국에 발주할지 관심입니다.

▶ 한화오션의 VLCC 수주

⑥ 한화오션이 그리스 Carlova Maritime로부터 VLCC 1척을 수주합니다. 한화오션은 7월 29일에 VLCC 2척 수주공시를 올립니다. 전자공시는 7월의 Advantage Tanker로부터의 수주인지, 이견인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한화오션은 올해 11척의 VLCC를 수주한 것으로 외신은 업데이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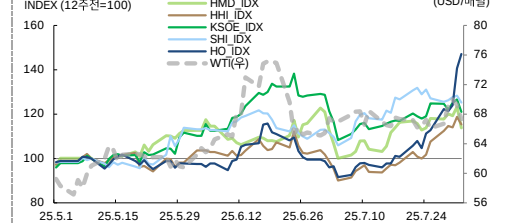
▶ 한미 무역협상에서 조선업 전용 펀드 1,500억달러 결성

관세협상의 레버리지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활용됩니다. 2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금융기관의 보증에 따른 대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교류, 인력 양성, 공동건설, 자본 투자 및 인수 등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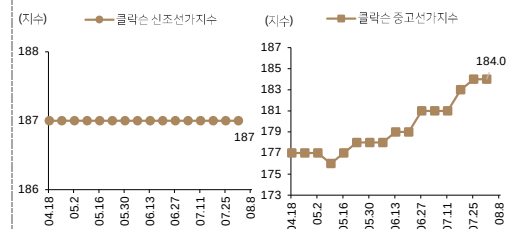
이제 한화의 필리핀 조선 투자, 오스탈 인수, HD현대의 HII, ECO와의 MOU와 같은 형태의 뉴스, 해당 건들의 투자 심화 뉴스들이 계속 투자를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치수



▶ 후반,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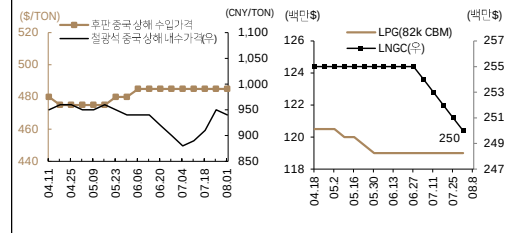


Fig. 한미 관세협약에서 조선업 공동펀드 1,500억달러로 MASGA 공략



“한미정상회담, 12일로 조율 중...美조선소 방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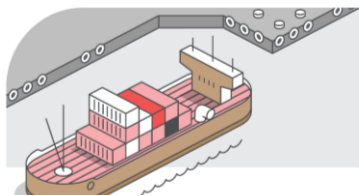
Fig. 미국 에너지 구매 약속 → 북미 LNG 사이클

국가	미국 에너지 구매 약속 규모	약정 기간	주요 품목 및 형태	비고
한국	1,000억달러	3.5~4년	LNG 중심 원유·LPG 등	직접 구매, 기존수입+연간 17억달러 추가
EU	7,500억달러	3년	LNG, 원유 등(러시아 대체)	대량 의존도 증가, 실현 논란 민간 강제 없음
일본	없음 (직접구매 약정X)	-	알래스카 LNG JV 등 금융출자	대규모 투자·보증 위주, 직접 구매 약정 발표는 없음

주시 뉴스

▽ 수주, △ 수주설

	주주	08월1주 주시뉴스	주주	07월4주 주시뉴스
선가 & 생산능력		▽ 신조선가치수 소수점 하락, LNG선, 컨테이너선 하락 ▽ HD현대상호, 변전소 화재로 조선소 작업 전면 중단		△ 신조선가치수 소수점 상승, LNG와 포스트-파나믹스 컨테이너선 하락, 중고선가 2주 연속 상승 △ HD현대미포의 Capital Maritime의 2,800-TEU 추가 수주에서 신조선가 4월대비 상승
그린십	✓	△ HJ중공업, H-line으로부터 1만8000-CBM급 LNG 병커링선 1척 수주	?	▲ CMA CGM과 TotalEnergies, LNG 병커링 공동운영 협약 체결
LNG	?	▲ Venture Global의 CP2 FID, 세 번째 LNG 프로젝트 착수 ▲ EU-미국 간 무역협정, 탱커 및 LNG선 시장에 호재		▲ 미국 조선소에서 약 50년 만에 첫 LNG선 신조 계약 체결, 한화 ▲ Clarkson's Research, LNG선 시장에 대해 장기 호황 기대 발표
가스선		N/A		N/A
컨테이너선	?	△ 프랑스 CMA CGM, 최대 12척의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검토 중 △ CMA CGM, 미국 내 선박 건조 계획 본격 추진	✓	▲ Yang Ming, 컨테이너선 시리즈 일본에 3척, 한화오션에 7척 발주 ? ▲ MSC와 CMA CGM, 수심억달러 규모의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 추진 ✓ ▲ HD현대미포, Capital Maritime으로부터 2,800-TEU 2척 추가 수주 ✓ ▲ EPS 중국에 1,800-TEU 컨테이너선 6척 발주 ✓ ▼ CK Line, 양자점 조선에 1,100-TEU 2척 발주
탱커	✓	▲ 그리스 신생 Carlova Maritime, VLCC 1척 한화오션에 발주 임박		△ VLCC 시장, 단기 반등 기대감 지속되나 여전히 제한적인 화물량으로 압박받는 상황
해양/디펜스	?	▲ Rystad Energy 보고서: FLNG 2030년까지 세 배 증가 전망 △ 한국,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선박 건조 분야 1,500억달러 투자 약속		△ 한·미 통상 협상에서 관세 논의 카드로 군산항을 활용할 가능성
기타	✓	△ 한화오션, 차세대 해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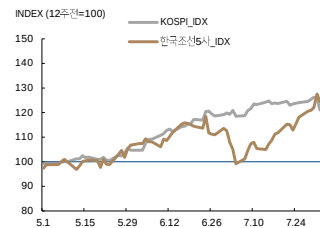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08.03 [7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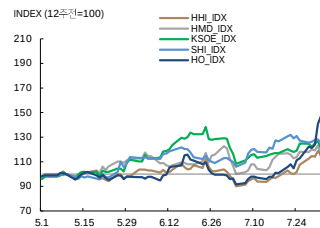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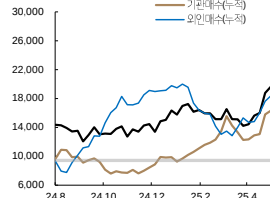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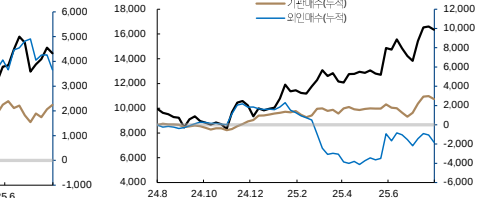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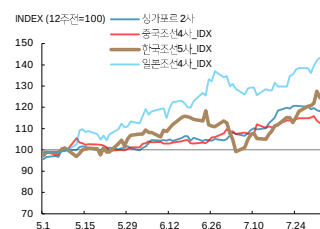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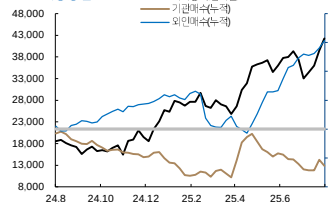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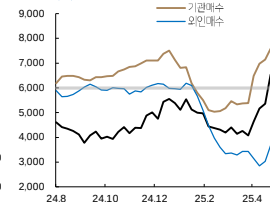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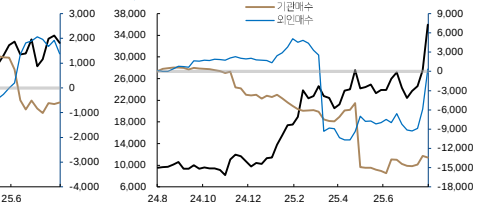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한화오션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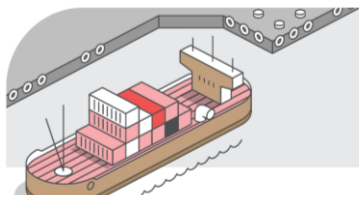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원)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1.8%	-0.3%	5.3%		3%	-24%
	ORB INDEX		-2.1%	-1.8%	-1.5%		9%	3%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17,470	-3.1%	-0.3%	29.2%		69%	290%
	HD현대중공업	30,441	7.2%	16.9%	18.2%		128%	262%
	삼성중공업	11,767	-1.5%	12.3%	26.2%		64%	221%
	한화오션	25,888	30.4%	53.3%	30.6%		277%	543%
	HD현대미포	5,622	-3.6%	1.1%	19.6%		70%	92%
싱가포르	KEPPEL	11,683	1.3%	9.3%	25.2%		34%	86%
중국조선	CSSC	21,067	-3.6%	2.6%	15.9%		-18%	51%
	CSC	14,678	-3.3%	-0.9%	10.8%		-18%	23%
	CSSC OMEC	4,248	-0.8%	0.0%	17.0%		-7%	32%
	YANGJIZIANG	7,714	-0.4%	12.9%	15.0%		1%	174%
일본조선	NAMURA SB	1,466	2.6%	7.1%	76.9%		92%	606%
	mitsui ES	2,242	3.4%	14.9%	93.9%		181%	774%
	KAWASAKI HI	12,717	3.1%	7.0%	33.3%		136%	323%
	SUMITOMO HI	2,834	5.1%	12.1%	12.0%		-7%	13%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687	-8.2%	-9.0%	-4.2%		-4%	-9%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16,435	0.3%	21.0%	56.7%		38%	187%
한국엔진	한화엔진	2,111	-1.4%	27.1%	29.5%		151%	351%
	STX엔진	712	11.0%	16.5%	4.4%		62%	62%
	HD현대마린엔진	1,579	0.5%	32.7%	76.1%		175%	1352%
기자재	한국카본	1,091	7.0%	14.3%	47.8%		143%	108%
	동성화인텍	582	9.3%	6.9%	4.3%		103%	128%
	세진중공업	542	10.9%	18.0%	51.0%		57%	91%
	SK오션플랜트	838	-2.2%	-4.2%	26.7%		53%	-25%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원)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2,491	-6.0%	0.7%	21.0%		-46%	18%
	SEADRILL	1,730	-8.0%	-4.1%	34.8%		-44%	11%
	Valaris	3,225	-10.3%	-0.3%	37.4%		-33%	16%
	ODFJELL SE-A SHS	960	2.5%	14.1%	30.7%		-21%	17%
IOC+	ExxonMobil	472,509	-0.7%	-1.3%	1.0%		-6%	24%
	Shell	211,488	0.0%	-0.4%	9.3%		0%	39%
	BP	83,496	0.2%	5.1%	9.4%		-10%	13%
	TOTALEnergies	134,431	-0.5%	-4.3%	-3.2%		-16%	14%
	Chevron	309,975	-2.2%	2.3%	9.1%		2%	1%
	ENI	53,376	0.3%	5.2%	15.2%		3%	38%
	Equinor	65,101	1.6%	1.3%	10.1%		-8%	26%
ENG.	SBM	4,599	1.6%	-0.2%	26.3%		56%	50%
FEED.	Technip FMC	14,517	-3.1%	2.0%	24.7%		31%	23%
	SAIPEM	5,144	-3.2%	-5.7%	11.1%		8%	17%
	NOV	4,505	-13.2%	-8.1%	-1.6%		-35%	30%
	MODEC INC	3,005	4.2%	-0.8%	59.1%		169%	25%
	WORLEY PARSONS	4,457	1.6%	2.3%	9.9%		-9%	16%

해운								
해운	MAERSK DC Equity	30,998	-7.9%	5.1%	5.7%		17%	17%
	SHIP FINANCE INTL LTD	1,304	-3.8%	1.2%	1.0%		-21%	1%
	CLARKSON PLC	1,392	-2.6%	3.8%	3.0%		-22%	1%
	EURONAV NV	1,975	-2.1%	-3.5%	-4.2%		-50%	16%
	GOLDEN OCEAN GROUP LTD	1,647	-1.8%	9.3%	5.7%		-33%	1%
	FRONTLINE LTD	4,185	1.5%	10.7%	13.5%		-19%	7%
	NORDIC AMERICAN TANKERS LTD	582	0.7%	2.6%	7.4%		-22%	1%
	KNOT OFFSHORE PARTNERS LP	236	-1.0%	3.6%	6.8%		2%	1%
LPG	BW Offshore	629	2.5%	12.7%	23.5%		122%	1%
	DORIAN LPG LTD	1,155	-6.6%	5.1%	23.0%		-29%	1%
	EXMAR NV	849	3.0%	5.1%	7.9%		61%	1%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선, 전자공시 등)

△ HJ중공업, H-line으로부터 1만8,000-CBM급 LNG 벅커링선 1척 수주

- 아래의 GreenShip 섹션 참고

▲ 그리스 신생 Carlova Maritime, VLCC 1척 한화오션에 발주 임박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한화오션, 차세대 해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아래의 기타 섹션 참고

▲ Venture Global의 CP2 FID, 세 번째 LNG 프로젝트 착수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프랑스 CMA CGM, 최대 12척의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검토 중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CMA CGM, 미국 내 선박 건조 계획 본격 추진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⑧HJSC Yeongdo→H-Line Shipping, LNGBV(18,000-CBM) 1척

- 아래의 그린십 섹션 참조

⑩Hanwha Ocean→Unknown European(Carlova Maritime), TK(320k-DWT)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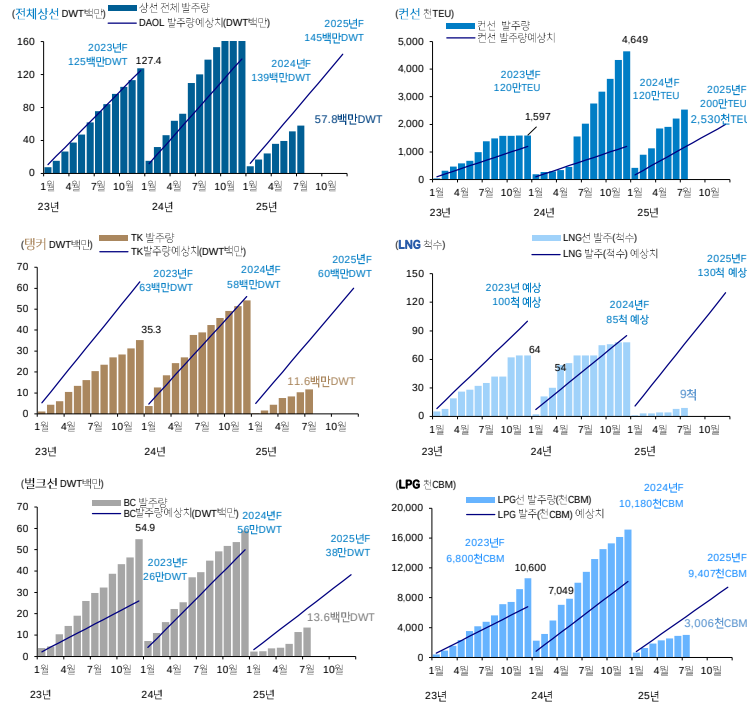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⑪Hanwha Ocean→Korea Polar Research, OTHERS 1척

- 아래의 기타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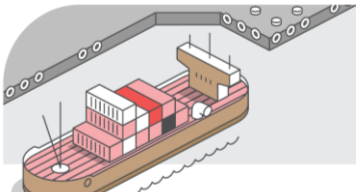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2025년 07월 3주									
중국	Huangpu Wenchong	25.07.07	유럽	Marla Dry Bulk	CONT	2k TEU	2027	2	
중국	Nantong CIMC SOE	25.07.14	북미	Navigator Amon Shpg	LPG	52k cu.m.	2028	2	
	New Jiangzhou SB	25.03.01	중국	Unknown Chinese	CONT	0k TEU	2026	1	
	SOHO I&T SB	25.06.0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7	2	
	Ningbo Penghong SB	25.02.01	중국	Ruico Shipping	GASC	26k DWT	2026-2027	2	
일본	Sasaki Zosen	25.07.14	일본	Itochu Corp	#N/A	5k cu.m.	2027	1	
2025년 07월 4주									
대한민국	Hyundai Mipo	25.07.23	Unknown	Unknown	CONT	3k TEU	2027	2	
	Hanwha Ocean	25.07.11	유럽	Advantage Tankers	TK	320k DWT	2027	1	
	Hanwha Philly SY	25.07.21	한국	Hanwha Shipping	LNG	174k cu.m.	2028	1	
중국	GSI Nansha	25.04.01	아시아	Evergreen Marine	CONT	24k TEU	2028-2029	5	
	Shanghai Waigaoqiao	25.06.15	유럽	MSC	CONT	21k TEU	2029	4	
	CSSC Guijiang SY	25.04.01	아시아	Meratus Advance Mari	OFF-기타	#VALUE!	2026	3	
중국	CMHI (Jiangsu)	25.07.01	유럽	MSC	CONT	21k TEU	2028	3	
	Taizhou Sanfu	25.07.18	유럽	MPC Container Ships	CONT	5k TEU	2027-2028	4	
	Yantai CIMC Raffles	25.07.21	유럽	Van Oord	OTHERS	18k GT	2028	1	
	Zhejiang Kailing	25.07.04	중국	Zhoushan Haihua	FERRY	0k P	2027	1	
	Zhoushan Changhong	25.06.01	유럽	MSC	CONT	22k TEU	2029	4	
		25.07.01	유럽	MSC	CONT	22k TEU	2029	2	
	POET (China) SB	25.01.01	중동	Halul Offshore	OFF-SUPP	#VALUE!	2026	2	
	Lixin Engineering	25.04.01	Unknown	Unknown	CONT	1k TEU	2026	2	
	Hantong WinG HI	25.07.01	유럽	MSC	CONT	21k TEU	2029	3	
	Hengbi SB (Dalian)	25.07.16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TK	158k DWT	2028	2	
			유럽	MSC	CONT	22k TEU	2029	2	
	Hubei Minghui HI	25.01.01	아시아	Lanpan	OFF-SUPP	#VALUE!	2027	1	
	Zhoushan Dashenzhou	25.03.31	유럽	Elcano	LPG	8k cu.m.	2027	1	
일본	Hakata Zosen	25.02.26	일본	Myojin Kaiun K.K.	PTK	320k DWT	2027-2028	2	
	Miura Zosensho	25.06.01	일본	Nishiyama Kisen	PTK	5k DWT	2027	1	
	Oshima Shipbuilding	25.01.01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27-2028	3	
		25.02.01	Unknown	Unknown	BULK	42k DWT	2027-2028	2	
		25.03.01	Unknown	Unknown	BULK	42k DWT	2028-2029	2	
	Koike Shipbuilding	25.01.01	일본	Asuka Kaiun	BULK	2k DWT	2026	1	
				Sanyo Oil KK	BULK	2k DWT	2026	1	
				Okamoto Kisen	BULK	2k DWT	2026	1	

2025년 07월 5주									
대한민국	HJSC Yeongdo	25.07.30	한국	H-Line Shipping	LNGBV	18k cu.m.	2027	1	
	Hanwha Ocean	25.07.29	한국	Korea Polar Research	OTHERS	0k LOA	2029	1	
		25.07.28	유럽	Unknown European	TK	320k DWT	2027-2028	2	
중국	Huangpu Wenchong	25.07.31	유럽	Schoeller Holdings	CONT	2k TEU	2027-2028	2	
		25.07.29	중국	COSCO Shipping Dev	BULK	9k DWT	2027-2028	2	
	CSSC Guijiang SY	25.01.01	아시아	Meratus Advance Mari	OFF-기타	#VALUE!	2025	1	
	Qingdao Beihai SB	25.07.29	중국	COSCO Shipping Dev	BULK	210k DWT	2027-2028	4	
중국	Damen Changde SY	25.06.01	유럽	Damen Workboats	OFF-기타	5k HP	2026	2	
	Jiangsu Dajin HI	25.06.30	중국	Seacon Shipping	BULK	5k DWT	2027	4	
	Jiangsu New YZJ	25.07.25	한국	CK Line	CONT	1k TEU	2027	2	
	Jiangsu Zhenjiang SY	25.04.01	Unknown	Tianjin Port Tugboat	OFF-기타	#VALUE!	2026	1	
		25.07.01	중국	Ningbo Dagang Pilot	OTHERS	0k LOA	2027	1	
	Tsuneishi Zhoushan	25.06.01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27	1	
	Zhoushan Changhong	25.07.31	유럽	Costamare Shipping	CONT	3k TEU	2027	4	
	Zhuhai Jianglong	25.07.01	중국	Daishan Mar Econ Dev	OTHERS	#VALUE!	2027	1	
	Fujian Mawei SB	25.07.29	중국	COSCO Shipping Dev	BULK	9k DWT	2027	2	
	COSCO HI (Zhoushan)	25.07.29	중국	COSCO Shipping Dev	BULK	210k DWT	2027-2028	6	
	New Jiangzhou SB	25.06.01	중국	Jiangxi Tongdu	OTHERS	15k DWT	2027	2	
	Zhoushan Newrising	25.07.23	중국	Shandong Hengqiang	CONT	1k TEU	2027	4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치수 소수점 하락, LNG선, 컨테이너선 하락

신조선가치수는 186.15p로 0.51p 하락
LNG선이 250백만달러로 하락했고 5주 연속 하락했고, 컨테이너선도 포스트파나마스와 울트라막스가 하락

▽ HD현대삼호, 변전소 화재로 조선소 작업 전면 중단

7월 28일(월) 저녁, HD현대삼호 내 변전소에서 화재 발생
다음날 오전 완전 진화. 변압기 손상으로 전력 공급 차단, 작업 중단 불가피
한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복구에 3~4주 또는 최대 1개월 소요될 가능성 제기
다만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변압기 제조사이기에, 부품 공급에 있어 빠른 복구 가능성도 있음
현재까지 신조선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음. 그러나 건조 지연 가능성 존재
HD현대삼호는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
조선소는 7월 28일부터 2주간 하계 휴가 기간 중으로, 실제 생산 차질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임
손해보험에 전면 가입돼 있음
HD현대삼호의 신조선 잔고는 총 111척, 총합 약 1,300만-DWT 규모

▽ 컨테이너선 볼티모어 충돌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에 배상청구 소송

2015년 건조된 9,962-TEU급 컨테이너선 Dali호가 2024년 볼티모어 Francis Scott Key 다리와 충돌. 건설 노동자 6명 사망
선박 소유주인 Grace Ocean과 운항관리사 Synergy Marine가 제품 결함 및 과실을 주장하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필라델피아)에 소송 제기
배경은 Dali호에 탑재된 HD현대중공업 설계의 스위치보드에 결함이 있어 전력 상실 사고를 유발
스위치보드 내 신호선이 단자 블록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으며, 운항 중 연결이 끊어질 수 있는 구조적 설계 결함 존재
저전압 해제 회로의 코일이 전압을 받지 못했고, 신호 제어선이 단자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음
이로 인해 개방 회로(open circuit) 상태 발생했고, 전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주장
해당 결함이 사고 전 발생한 두 차례의 정전과 결정적 충돌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
또한, Hyundai Intelligent Measuring and Protection Model T(전류 감시 시스템)가 이러한 전압 손실을 감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
선박 손상에 대해 볼티모어에서 진행 중인 책임제한 소송에서 발생할 책임 범위, 이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한 배상 청구. 배상액은 명시되지 않음
참고로, Grace Ocean과 Synergy는 미국 정부에 항로 복구 비용으로 102백만달러 지급 합의한 바 있음
HD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 발표 없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초기 정전 원인 중 하나로 느슨한 전선 접촉 가능성 언급한 바 있음
☞ "작년 사고 시에 사측의 해명은, "HD현대중공업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였습니다"

[24년8월] ▽ 볼티모어에서, 다리 충돌 봉괴사건에 법적 조치 의사 밝힘

볼티모어 시장인 브랜든 스킷은 볼티모어에서 다리에 충돌해 봉괴된 컨테이너선에 연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협
이 사건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항구가 폐쇄되었으며, 6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
사고 선박인 9,962-teu Dali(2015년 건조)의 소유주, 관리자, 사용자,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선박은 싱가포르의 Grace Ocean이 소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Synergy Marine이 관리하고 있고, 덴마크의 대형 선사 Maersk가 운용. 선박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시장은 두 법률회사를 고용하여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및 환경적 손실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예정
사고에 대한 연방 수사국(FBI)의 형사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HJ중공업, H-line으로부터 1만8000-CBM급 LNG 병커링선 1척 수주

180k-CBM LNGBV, 발주처는 에이치라인해운
계약 체결일은 2025년 7월 30일이고, 2027년 12월 31일 인도 일정
2025년 2월 최초 계약을 했지만, 5월 선주사 일정 변경으로 취소되었다가
2025년 7월 재입찰에서 HJ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최종 계약 체결
HJ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LNG 병커링선 시장에서 입지 강화 기대
HJ중공업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8860억원, 영업이익 73억원, 당기순이익 52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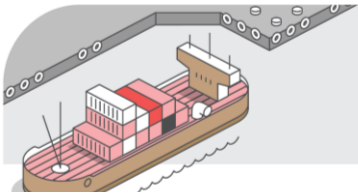
[02월3주] ▲ H-Line은 HJ중공업에 LNGBV 발주

18,000m³급의 신조선가는 88백만달러
HJ중공업의 첫 LNGBV 수주. LNG 연료 시장 확대에 맞춰 LNGBV 수주 강화를 목표로 제시
같은 날 그리스 Evalend Shipping도 HD현대중공업에 LNGBV 4척 신규 발주
글로벌 선사들은 LNG 연료 기반 인프라 확대에 적극 대응 중
H-Line은 LNG 연료 추진선 및 LNG선 운영 경험을 보유 중

▶ LNGc

△ Nakilat, 한국 수출입은행(KEXIM)과 LNG선 25척 건조 금융 계약 체결

카타르 국영 LNG 운송사 Nakilat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인 174,000-CBM급 LNG선 25척에 대해 KEXIM과 금융 계약 체결
Nakilat CEO는 "KEXIM과의 파트너십은 Nakilat의 재무 안정성과 전략적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며, 글로벌 LNG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언급
이번 협력을 통해 카타르-한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
2006년에도 KEXIM은 Nakilat의 LNG선 25척 건조에 금융 지원, 이번이 두 번째 협력
프로젝트가 한국 내에서 건조되고 금융도 한국 정부기관에서 조달되므로, 정부 지원 수출금융(full-cycle export finance) 모델로 작동.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Nakilat은 현재 한국 조선소에 LNG선 총 25척을, 중국 Hudong-Zhonghua Shipbuilding에는 271,000-CBM QC-Max LNG선 9척을 건조 중



▲ Venture Global의 CP2 FID, 세 번째 LNG 프로젝트 착수

Venture Global, 미국 루이지애나 Gulf Coast 지역에서 세 번째 LNG 생산 프로젝트(CP2 LNG)의 ph1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 발표
CP2 LNG 프로젝트는 연간 28mtpa 생산 규모이며, 2027년부터 LNG 수출 개시 예정
미국-EU 간 에너지 협정에 따른 수혜로 FID가 가속화. EU는 향후 3년간 750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합의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외의 무역협정 일환. 이 협정 발표로 Venture Global 등 액화 프로젝트 기업 주가 상승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어져서, CP2 LNG ph1 및 CP Express 파이프라인 건설의 15.1십억달러 규모 자금 조달 완료
이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파이낸싱이며, 외부 자본 투자 없이, 전 세계 29개 은행에서 340억달러가 넘는 투자 의향 확보
CP2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Venture Global은 미국 최대 LNG 생산기업인 Cheniere Energy를 제치고 1위 등극
Venture Global의 전체 계약 잔고는 4,350만톤, 총 생산·개발 용량은 100MTPA 이상
Venture Global은 모듈식 건설 방식을 채택해 Calcasieu Pass(10MTPA), Plaquemines LNG(20MTPA)를 건설했지만, 인도 지연 및 시운전 문제로 일부 고객 불만 발생한 바 있음
CP2 LNG는 시운전 기간 중 약 550건의 LNG 화물 생산 가능성 있으나, 이전보다 빠르게 상업 운전 가능 전망
CP2 LNG는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고객과 장기 구매계약(SPA) 체결 중

[07월3주] ▲ 이탈리아 Eni, 미국 Venture Global과 2MTPA, 20년 장기 LNG 계약 체결

[06월1주] ▲ Venture Global, 최대 규모 LNG인 CP2의 FERC 승인 획득, 한국 조선사들과 LNG선 발주 협상

Venture Global은 루이지애나에 건설 예정인 28MTPA CP2 LNG 플랜트에 대해 FERC(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로부터 환경영향 재검토 후 최종 승인을 획득
CP2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LNG 수출시설이자, 완공 시 Venture Global을 미국 내 최대 LNG 생산업체로 격상시킬 전망
현재 Calcasieu Pass LNG(10MTPA)는 상업 가동 중이고, Plaquemines LNG(20MTPA)는 가동을 점진 상승 중
3월에는 Plaquemines의 18.6MTPA 확장 계획도 발표
세 프로젝트 합산 시 Venture Global의 총 액화 용량은 76MTPA 이상으로 확대
CP2의 1단계 최종 투자결정(FID)은 2025년 중반으로 예상되며, 모든 연방 승인 확보 후 2027년부터 LNG 인도 개시 예정
CEO Mike Sabel은 "미국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LNG를 세계에 공급하는 중추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언급
LNG선은 Venture Global은 11척 이상을 보유 중이지만, 신규 LNG선 발주를 위해 조선소들과 협의 중
한국 조선소들과의 신조선가 협상 및 LNG선 발주 입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회사는 앞선 프로젝트들의 지연된 시운전 일정으로 인해 일부 구매자들과 법적 분쟁 발생했지만
CP2는 이전보다 빠른 시운전 진행 목표, 최대 550건의 화물 시운전 기간 중 생산 예정

[04월2주] ▲ 미국 Venture Global, 최대 12척의 LNG선 발주 위해 한국 BIG3와 협상 완료

▲ EU-미국 간 무역협정, 탱커 및 LNG선 시장에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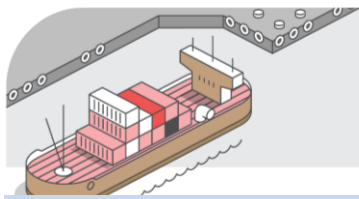
7월 28일 공개된 EU-미국 무역협정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미국산 에너지 제품 7,500억달러어치 수입 예정.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종료 시점까지 적용
대서양 횡단 에너지 해상 수송량 증가로 탱커 및 LNG선 시장 수혜 전망
이는, 러시아산 LNG 및 석유공급을 대체 수요로 장거리 수송 증가의 톤-마일 효과 때문
EU의 대러시아 제재(원유·정제유 수입 금지)는 유지 중이며, 2028년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축소 계획도 발표됨
이에 따라 LNG선 및 PC선 투자 심리 개선. Fearnleys, 이븐 협정이 LNG선 시장에 긍정적이라 평가
PC선사 Torm, 코펜하겐 증시에서 3.35 DKK 상승 (주당 122.35 DKK)
자동차 수출입도 증가 가능성 대두되며, Hoegh Autoliners +3.4% (107.60 NOK), Wallenius Wilhelmsen +3.3% (96 NOK) 주가 상승
유럽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15% 관세 부과 (당초 트럼프가 경고한 30%보다 낮은 수준)
미국산 차량의 대유럽 수출 확대 가능성도 있어, 자동차선 해상 물동량 상호 확대 기대
컨테이너선 시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
글로벌 무역 둔화 및 관세전쟁 여파로 컨테이너선 수요 위축 우려 가능성도 있기 때문
Oxford Economics은 관세정책으로 2027년까지 세계경제 2조달러 손실 발생 전망
Maersk 비의결권 주식 -1.5% (13,610 DKK), 의결권 주식 -1.3% (13,500 DKK) 하락
일부 컨테이너선 업체는 낙관적 시각, "15% 관세는 글로벌 교역량을 줄일 만큼 크지 않다"며
주요 선사들, 신조선 대량 발주 및 2년 이상 선박 용선 지속 중
EC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는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라고 해석

△ Adnoc Logistics & Services, 2025년 LNG선 해체 시장 기록 갱신에 기여

Adnoc L&S가 보유한 스티터빈 137,500-CBM LNG선 3척(1995년 건조 2척, 1994년 건조 1척)을 해체용으로 매각
이로써 2025년 LNG선 해체 매각은 총 10척. 2024년의 8척 해체 기록을 경신
1척은 33,407-LDT, 톤당 약 615달러, 중국 인도 기준으로 약 2,060만달러
2호선은 33,457-LDT, 톤당 약 620달러, 싱가포르 인도 기준으로 약 2,070만달러
두 선박 모두 알루미늄 3,200톤 포함, 연료(bunker)는 2,500~3,200톤
Adnoc L&S는 기존에 거래선이나 개조용으로만 매각하려 했으나, 해체 결정으로 방향 선회
해당 선박들은 세계 LNG선 중 15척 안에 드는 고령 선박이며, 향후 1년 내 특별 검사(drydocking) 예정이었음
LNG선 해체 시장은 2025년 LNG선 20척 이상 해체 가능성 제기. 비효율 및 규제 미달 선박 정리 움직임 가속
2025년 LNG선 신조 인도는 약 90척으로 사상 최대로, 중고선 시장을 압박
일부 증기 및 디젤전기식 LNG선은 운항 중단 또는 계선(lay-up) 상태
말레이시아 MISC도 스티터빈 130,405-CBM LNG선 (1995년 건조)에 대해 조기 매각 검토
H-Line Shipping은 2024년에 135,450-CBM, 135,566-CBM(2000년 건조) 2척을 해체 매각. 이후 방글라데시 해체장으로 1,170~1,180만달러에 재매각
Moss-type LNG선(Adnoc 보유)이 membrane-type LNG선(H-Line 보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해체 가격에 매각 중
Membrane형 선박은 단열재로 사용된 perlite의 처리 어려움으로 인해 해체 비용이 낮음

▽ TotalEnergies, 파푸아뉴기니 Papua LNG 프로젝트 지연

TotalEnergies는 Papua LNG 프로젝트는 FID가 1년 넘게 보류 중
EPC 견적이 과도하게 높게 제시되어 재입찰 절차 중이지만, 2025년 FID 가능성은 낮음
진행 지연의 주요 원인은 현지 정부·지방정부·토지소유자들과의 복잡한 협상이 가장 큰 걸림돌
환경 인허가, 토지소유자 확인, 수익배분협약 등 현지 승인 절차도 미완료
프로젝트는 2026년 중반쯤 FID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
가스 생산설비(EPC)와 육상·해저 파이프라인 공사 입찰이 진행 중이며
입찰 참여 기업은 프랑스, 이탈리아, 아부다비, 인도, 한국, 중국의 업체들
ExxonMobil은 PNG LNG 플랜트 내 4기의 액화 모듈 설치를 위한 별도 입찰 주관
프로젝트 지분 구조는 TotalEnergies 37.55%, ExxonMobil 37.04%, Santos 22.83%, JX Nippon 2.58%
PNG 정부 산하 Kumul Petroleum은 22.5%까지 지분 재취득(back-in) 가능
프로젝트의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아시아 EPC 업체들에 입찰 기회 제공
PNG 정부, TotalEnergies, ExxonMobil 등 JV 파트너 간 비용 문제 해결 및 FID 향한 협의 예정
PNG 정부는 Papua LNG가 지연될 경우, P'nyang LNG 또는 Wildebeest 프로젝트 우선 추진 가능성도 고려
TotalEnergies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LNG 판매 계약 마케팅 진행 중이며, 일부 성과 보임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N/A

▶ 컨테이너선

△ 프랑스 CMA CGM, 최대 12척의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검토 중

21,000~24,000-TEU급 LNG D/F 컨테이너선. 확정 6척 + 옵션 4~6척
입찰 참여 조선소는 중국 국영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 산하 조선사들과
중국 민영 조선소 Hengli Heavy Industry, Yangzijiang Shipbuilding, 그리고 한국의 BIG3
21,000-TEU급 LNG D/F에 한국은 약 250백만달러를 제시했고, 중국은 230백만달러
이 와중에 hengli는 적당 207백만달러를 불러서, Yangzijiang, Jiangnan의 220~230백만달러와도 큰 차이. 중국 내 조선소 간 가격 차이: 약 5~10%
LNG 연료탱크 방식은 과거에는 membrane-type 사용, 이번에는 type-C 방식 채택 가능성 높음. 적당 15백만달러 절감 효과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감을 의식해 미국 조선소 발주도 검토 중.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항만세 부과한 점도 변수
그러나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인도 일정으로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CMA CGM은 0,000-TEU 이상 선박 14척을 운영 중이고
2023년에 Yangzijiang에 24,000-TEU급 LNG D/F 10척 발주(신조선가 240백만달러)
해당 선박은 Xinfu조선소에서 건조 중. 2026~2027년 인도 예정
이번 발주 포함 시 20,000-TEU 이상 잔고 16척이 됨(옵션 제외). 글로벌 잔고는 113척
MSC 74척, Cosco + OOCL 12척, Evergreen Marine 11척
컨테이너선 발주 시장이 과열. 대다수 대형, 크기에서 발주 급증

△ CMA CGM, 미국 내 선박 건조 계획 본격 추진

CMA CGM은 미국 내 "경쟁력 있는 가격" 조건하에 선박 건조 방안 추진 중
현재 미국 조선소 및 이해관계자들과 조건 협의 중. 건조 수량은 미정
Rodolphe Saade 대표는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시 미국에 2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CMA CGM, 미국 국적 선박 규모 3배 확대를 약속한 바 있음
2025년 7월 24일, CMA CGM Phoenix(9,328-TEU, 2013년 건조)를 미국 국적으로 전환. 기존 싱가포르
선대 685척의 CMA CGM은 현재 LNG D/F 선박 76척 보유. 추가로 86척 건조 중이며, 2029년까지 인도 예정
☞ 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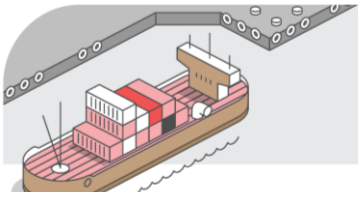
▶ 탱커

▲ 6월 중동 위기 대응 차원에서 아시아 에너지 구매자들이 이웃국가로 수입처 다변화

중국·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구매자들은 6월에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원유 구매 증가
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음
7월 아시아 지역의 원유 도착량은 6월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같은 기간 중동산 원유 비중은 4% 감소. 대신 동남아·호주산 원유 비중 2% 상승, 북미 동해안산 1% 상승, 남대서양산도 1% 증가
긴장이 완화되며 중동-아시아 간 수송은 재개될 전망
Mathews는 "중동산 원유 구매가 곧 다시 증가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완화에 주목
미국 동해안산 수출의 증가는 한국, 대만, 일본의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
그러나 유럽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지역 수요가 아시아를 제치고 우선권 확보할 가능성 높음
탱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6월 초 Baltic Dirty Tanker Index는 938에서 6월 24일 1,109로 급등
긴장 완화 이후 7월 말 기준 882로 하락. 연중 최저 수준 기록
하반기에는 1) OPEC의 감산 완화 및 공급 확대, 2) 중동 내수 감소에 따른 해당 물량이 수출로 전환으로 시장 개선 가능성 제기

▲ 그리스 신생 Carlova Maritime, VLCC 1척 한화오션에 발주 임박

2025년 4월 설립된 Carlova Maritime이 한화오션과 VLCC 1척에 대한 조건부 계약 체결. 옵션 여부는 모름
320k-DWT급, 전통 연료 추진. 2027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25~126백만달러
Carlova Maritime은 Anthony Inglessis가 이끄는 선사로 Samos Steamship(1911년 설립)을 계승한다고 주장
현재 보유선박은 총 7척. VLCC 1척 (Kokkari호, 2008년 일본 건조), 수에즈막스 1척, 아프리카막스 3척, 벌크선 2척 (케이프사이즈 1척, 캄사막스 1척)
8월 중순까지 유조선 1척, 벌크선 1척도 추가 인도 예정
한화오션은 일본 조선업체 JMU 대비 빠른 인도 시점, 가격 경쟁력이 우위였던 것으로 전망
일본 VLCC 인도는 가장 빠른 슬롯이 2028년 하반기. JMU의 VLCC 생산은 Ariake 조선소 한 곳뿐
일본은 친환경 연료 선박 중심 금융지원으로 인해 원유운반선 신조시장에 비우호적이고, 이에 따라 일본 조선소들의 VLCC 수주 경쟁력은 악화 중
한화오션은 2025년에 11척의 VLCC를 수주. Tsakos Energy Navigation, Advantage Tankers, Capital Group, 한화해운 등



▶ 오프쇼어/윈드/디펜스

△ Vantage Drilling, 초심해 드릴십 'Platinum Explorer' 계약 확정 시한 30일 연장

두바이 본사의 Vantage Drilling은 자사 드릴십 Platinum Explorer에 대해 4월 23일 체결한 조건부 계약서(CLOA)의 유효기간을 30일 추가 연장
계약 금액은 약 80백만달러, 총 260일 작업 기간(이동, 계약 준비, 철수 포함)
계약 성사는 미공해 고객의 내부 이사회 승인 및 정부 승인 등 조건 충족 시 확정
전체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은 이동 및 준비 비용 보전 형태로 지급, 한정된 마진 포함
드릴링 캠페인은 2024년 9월 전 이동 및 준비. 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약 70일간 시추작업 예정
Bahamas 선적의 Platinum Explorer는 15년 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인도한 6세대 초심해 드릴십
최대 12,000피트 수심, 40,000피트 시추 깊이 가능
직전 계약은 인도 국영 ONGC와의 계약, 2024년 1분기 종료
현재 말레이시아 Labuan에 계류 중이며, 계약 대기 상태
2024년 5월부터 6-ram BOP(블로우아웃 방지 장치)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 중

▲ Rystad Energy 보고서: FLNG 2030년까지 세 배 증가 전망

Rystad Energy는 글로벌 FLNG) 설비 용량이 2024년 14.1MTPA에서 → 2030년 42MTPA, 그리고 2035년까지 55MTPA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FLNG는 소규모 가스전의 경제성 향상, 유연하고 빠른 인도 일정, 낮은 투자비 등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
FLNG 신조 프로젝트 평균 건조기간은 약 3년. 육상 LNG 플랜트는 약 4.5년 소요됨
현재 건설 중인 FLNG선 평균 건조기간은 2.85년으로 더 짧음
2024년 기준 기존 FLNG의 평균 가동률은 86.5%, 2025년 현재 76% 수준으로 육상 플랜트와 유사
Shell Prelude 프로젝트는 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업계 성숙도 향상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원거리 가스전 개발을 위한 해상 FLNG 채택 확산될 것으로 기대
미국 Gulf Coast FLNG 프로젝트 평균 액화비용은 톤당 약 1,054달러로, 육상 LNG 프로젝트와 비용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 도달
Delfin FLNG는 톤당 1,134달러 예상, Mozambique Coral South FLNG는 톤당 1,062달러
일부 FLNG는 upstream 설비 포함 통합형 구조이고, 다른 일부는 단순 파이프라인 + 가스 액화 설비로 구성
따라서 프로젝트 간 직접적인 비용 비교에는 제한점 존재
▶ 삼성중공업의 매년 1~2기 수주와 건조 체제가 오래 진행됩니다.

△ 한국 정부, 미국 조선업에 최대 400십억달러 투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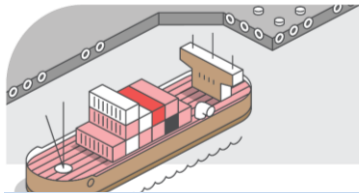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8월 1일 대중국/대한민국 수출 관세 시한을 앞두고 투자 발표 가능성 대두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 및 현지 조선 클러스터 형성이 목적
(small and midsize suppliers into the US market, create a local shipbuilding hub)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건설 참여도 추진 중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신중한 입장. 미국 조선소 매출 부족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 제기
한미 간 모듈식 공동 건조 가능성도 부상. 상선 및 군함 공동 건조 논의
사례로 HD현대와 미국 루이지애나 소재 Edison Chouest Offshore(ECO)의 중형 컨테이너선 미국 조선소 건조 협력과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라델피아에서 LNG선 공동 건조 착수. 설계 및 일부 공정은 한국 거제 조선소에서 수행
한국 정부,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조선 기술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셈
한국-미국 간 무역협정 협의는 지난주 금요일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7월28~8월1일)로 연기됨
일본과의 경쟁 요인이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형국. 일본은 지난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15% 수준으로 합의
550십억달러 규모의 미국 산업 투자 내용에, 상선·군함 조선소 신설 및 현대화도 포함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CNBC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목질이 될 정도의 반응"이라 언급
일본-미국 협상이 발표된 후, 한국 정부의 위기감과 대응 가속을 지적

▲ 한국,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선박 건조 분야 1,500억달러 투자 약속

2025년 8월 1일 관세 발효 전 협상 마무리. 미국 수출품에 대한 일반 관세율 25%에서 15%로 인하
철강 및 알루미늄은 트럼프의 글로벌 품목 기준 관세율인 50% 관세 유지
한국은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 약속
1,000억달러는 에너지 분야, 1,500억달러는 미국 선박(군함 포함) 건조 산업(MASGA 프로젝트) 지원
나머지 투자금은 반도체, 바이오텍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 미국 진출에 활용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7월에 개시, 한 달 만에 타결.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60억달러
MASGA 프로젝트의 역할은 한국의 선진 조선산업을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며 협상에서 주요 지렛대로 작용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조선국이며, 미국 해군 및 상선 건조역량 회복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부상
관련 논의는 2주 후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정상회담에서 진행 예정
미국은 인도에 25% 기본 관세 부과 발표. EU 및 일본과의 최근 협정보다 높은 수준
트럼프는 "인도는 동맹이지만 관세와 무역장벽이 과도하다"는 입장 표명

△ 한화위평-한화필리-한화오션의 미국 LNG선 건조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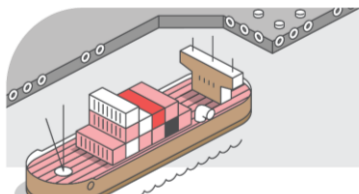
한화오션 계열사인 Hanwha Shipping, 미국 조선소에서 약 50년 만에 최초로 LNG선 발주
Hanwha Philly Shipyard는 한화오션에 LNG선 1척 건조 계약 + 1척 옵션 계약 수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부활(MASGA)' 정책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
건조 방식은 'Joint build' 형태로, 선체 상당 부분은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제작 예정이고, 미국 조선소는 조립·마무리 역할 수행 가능
LNG선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Hanwha Shipping의 전략적 장기 계획은, 향후 10년간 LNG 건조 역량을 미국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력해 미국 flag로 등록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제공
미국 조선소 근로자에게 LNG선 건조에 필요한 기술 훈련 제공
트럼프 행정부는 2028년부터 미국산 LNG의 일부를 '미국 건조선'으로 수출토록 의무화 예정
이미 수십억달러 규모의 조선산업 육성 법안 통과
그러나 단순 자금 투입만으로는 부족. 기술, 인력, 공급망 구축 병행 필요
Haynes Boone 법무법인 William Cecil 변호사 "한화의 LNG선 프로젝트는 해외 조선 기술이 미국에 이전되는 사례"라며
"LNG선 건조는 고유한 설계, 화물창 기술,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데, 미국 조선소에 이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는 의미"
과거 브라질 사례의 경우 2000년대 브라질 정부도 대형 조선소(EAS)를 세우며 부활 시도했지만,
인력난, 지연, 파산, 폐쇄 경험. 현재는 수리 중심으로 존속
미국 조선업 부활도 수년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
분열된 미국 정치권 내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공감대 형성된 이슈임
미국 조선업 부활이 지속되려면 행정부 교체를 넘어선 장기적 관심과 지원 필요



▶ 기타

▲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한화오션이 극지연구소에 제안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시행
2025년 7월 본 계약 체결 예정. 2029년 12월 인도 목표
선박 제원은 총 톤수 16,560톤(기존 아라온호의 2배 이상), LNG D/F 전기추진체계 탑재
PC3급 쇄빙 능력으로 1.5m 두께 얼음 양방향 쇄빙, 내한 성능 영하 45도
선실, 식당 등 생활시설은 고급 여객선 수준
2009년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이후 극지 연구 독자 수행
극지 환경 변화 및 친환경 규제로 후속 쇄빙선 필요성 대두
한화오션은 2008년부터 극지용 선박 개발 착수했고
쇄빙 LNG선 세계 최다 건조 실적 보유. 총 21척 (2014년 15척, 2020년 6척)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와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연구 플랫폼"
향후 미국 등 수요 증가에 대응, 쇄빙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산자부 정책과제인 PC2급 쇄빙선 개발 사업도 수주하여 기술 고도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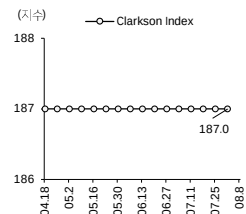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08.03 [7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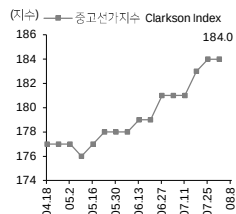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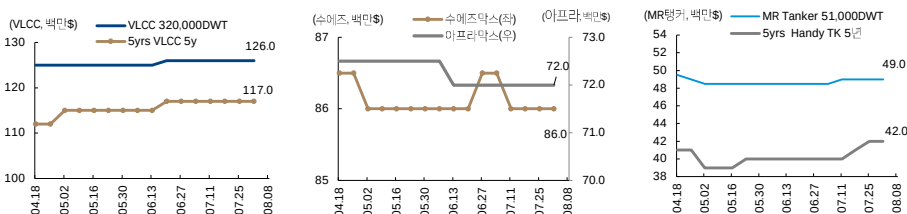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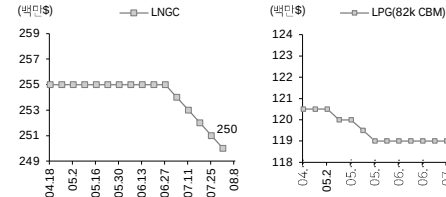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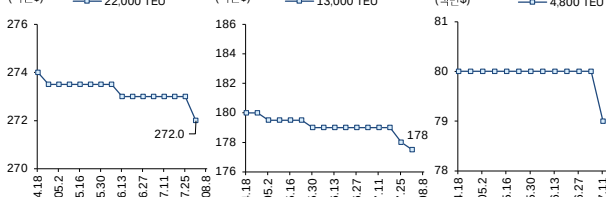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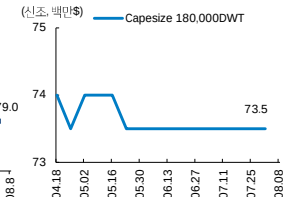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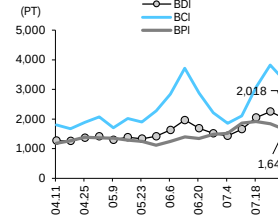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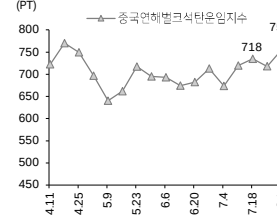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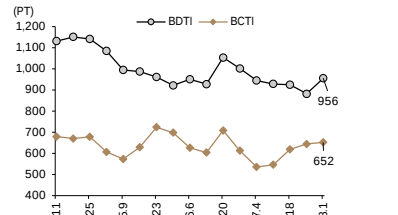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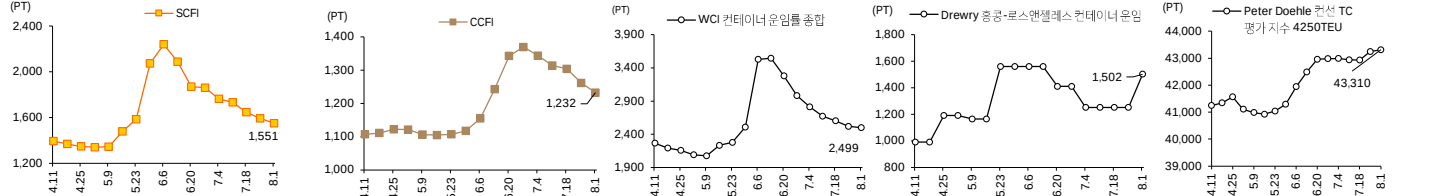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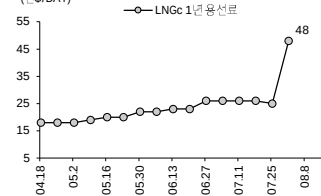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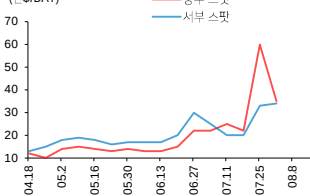


운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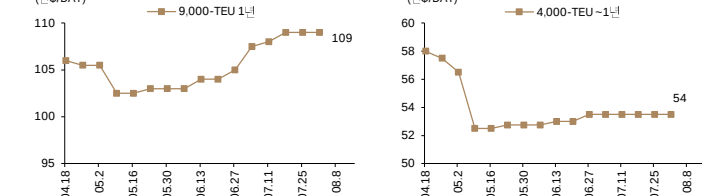
▶ LNG선 운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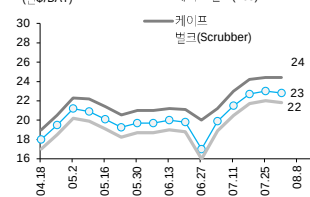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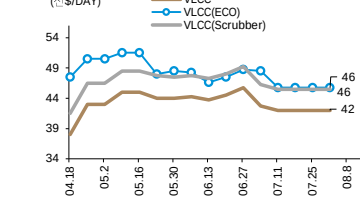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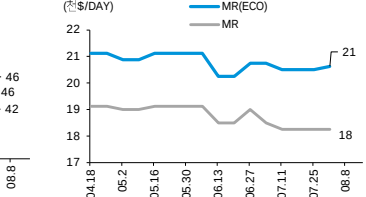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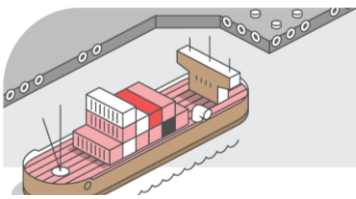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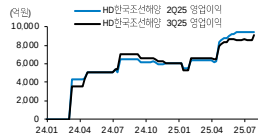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08.03 [7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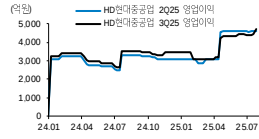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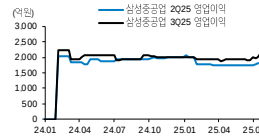
▶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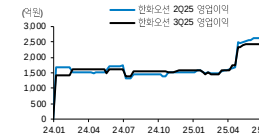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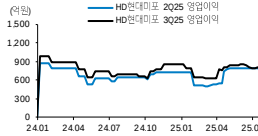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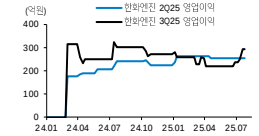
▶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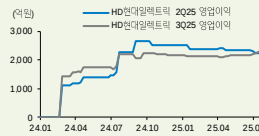
▶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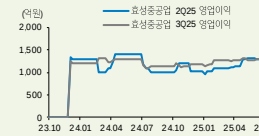
▶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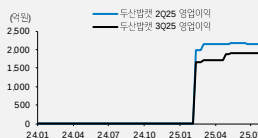
▶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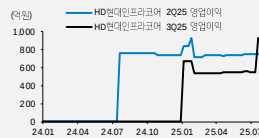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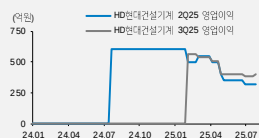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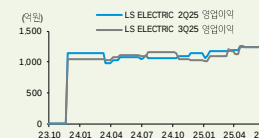
▶ HD현대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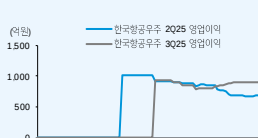
▶ HD현대건설기계



▶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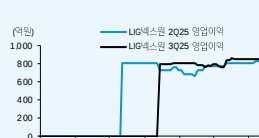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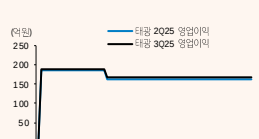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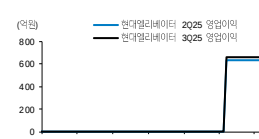
▶ 태광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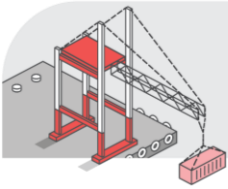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07.05	25.07.12	25.07.19	25.07.26	25.08.01	25.08.04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25 PER	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3,700	23,033	27,899	31,535	31,410	32,804	32,804	33,087	32,054	32,054	4%	2%	10.7	343,000
	HD현대중공업	10,822	10,656	13,298	14,843	15,034	15,114	15,335	15,135	14,896	14,896	-1%	22%	32.4	476,500
	삼성중공업	577	563	568	587	550	595	607	696	696	696	2%	2%	26.7	18,580
	한화오션	1,443	1,538	1,680	2,477	2,515	2,619	2,711	2,709	3,081	3,081	23%	28%	38.1	117,400
	HD현대미포	5,734	5,655	5,955	6,055	6,180	6,094	6,220	6,134	6,091	6,091	1%	11%	32.1	195,600
조기	한화엔진	943	946	984	982	984	984	991	1,166	1,166	1,166	1%	0%	30.2	35,150
	STX제진	1,139	1,276	648	648	648	648	648	648	648	648	0%	0%	38.1	24,650
	HD현대마린엔진	743	756	1,241	1,277	1,221	1,318	1,332	1,332	1,516	1,516	19%	24%	42.7	64,700
	건설기계	6,798	6,953	6,873	5,665	5,992	5,992	5,992	5,254	4,920	4,920	-53%	8%	18.4	90,300
발전/중전기	HD현대건설기계	779	760	755	736	743	743	743	895	886	886	23%	38%	17.1	15,180
	두산밥캣	5,660	5,799	5,810	5,459	5,467	5,467	5,467	5,467	5,147	5,147	-5%	35%	10.3	53,100
	두산에너빌리티	679	622	632	621	495	459	459	456	452	452	-53%	29%	135.8	61,400
	HD현대일렉트릭	19,069	19,069	18,955	18,905	18,765	18,735	18,764	18,617	18,693	18,693	-4%	9%	25.9	484,000
방산/기타	LS ELECTRIC	10,836	10,708	10,920	11,083	11,164	11,048	10,888	10,030	10,010	10,010	-53%	10%	29.2	292,500
	한국항공우주	2,829	2,817	2,702	2,505	2,520	2,526	2,510	2,510	2,598	2,598	4%	3%	35.0	90,9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2,491	34,119	36,587	34,787	35,208	33,448	31,435	31,558	31,779	31,779	13%	10%	29.5	939,000
	LIG넥스원	11,586	12,101	11,823	13,371	13,440	13,801	13,801	13,836	13,836	13,836	3%	3%	42.8	592,000
기타	한화시스템	1,199	1,191	1,105	1,036	1,023	1,081	1,086	1,086	1,004	1,004	-8%	22%	59.7	59,900
	현대로템	5,858	5,946	6,218	6,859	7,017	6,961	7,072	7,071	7,071	7,071	3%	1%	27.4	194,000
	현대엘리베이터	0	0	6,840	6,840	6,840	6,840	8,552	8,552	8,552	8,552	23%	25%	9.8	83,800
피팅	성광벤드	2,096	1,968	1,932	1,901	1,844	1,659	1,659	1,659	1,659	1,659	-13%	10%	18.9	31,300
	태광	1,889	1,959	1,959	1,959	1,879	1,547	1,547	1,547	1,547	1,547	-21%	8%	14.3	22,150
	하이룩코리아	3,741	3,644	3,644	3,644	3,644	3,644	3,644	3,644	3,644	3,644	0%	0%	8.1	29,550

그룹	종목	2025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07.05	25.07.12	25.07.19	25.07.26	25.08.01	25.08.04	2025	2026	2025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76,759	177,304	178,961	182,430	182,230	184,158	184,158	183,176	182,622	182,622	18%	22%	1.88	
	HD현대중공업	73,716	73,776	74,335	75,568	75,858	75,831	76,148	75,760	75,243	75,243	20%	30%	6.33	
	삼성중공업	5,903	5,917	6,057	6,122	6,121	6,129	6,118	6,275	6,265	6,265	11%	16%	2.97	
	한화오션	16,256	16,440	17,125	18,408	18,458	18,582	18,627	18,624	18,981	18,981	16%	20%	6.19	
	HD현대미포	56,570	56,500	56,512	56,529	56,618	56,522	56,677	56,677	56,314	56,314	11%	17%	3.47	
조기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22%	28%	6.62	
	STX제진	10,979	10,979	8,298	8,298	8,298	8,298	8,298	8,298	8,298	8,298	8%	57%	2.97	
	HD현대마린엔진	9,937	9,501	10,818	10,966	11,157	11,050	10,941	10,941	11,084	11,084	14%	30%	5.84	
	건설기계	99,948	97,754	101,021	100,299	100,299	100,299	100,299	101,410	101,278	101,278	5%	8%	0.89	
발전/중전기	두산밥캣	73,527	71,397	72,118	73,000	73,206	73,206	73,206	73,206	75,321	75,321	7%	8%	0.70	
	HD현대인프라코어	10,424	10,311	10,307	10,174	10,174	10,174	10,174	10,471	10,415	10,415	9%	11%	1.46	
	두산에너빌리티	12,517	12,168	12,683	12,675	12,447	12,440	12,440	12,437	12,463	12,463	4%	6%	4.93	
	HD현대일렉트릭	57,223	57,223	55,777	55,634	55,342	55,312	55,356	54,755	54,834	54,834	34%	36%	8.83	
방산/기타	LS ELECTRIC	70,422	70,422	69,852	69,740	69,459	69,358	69,185	69,409	68,409	68,409	15%	18%	4.28	
	한국항공우주	19,277	20,029	19,915	19,646	19,666	19,676	19,568	19,568	19,872	19,872	13%	19%	4.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51,266	163,186	177,450	163,704	168,701	154,728	155,645	155,840	162,890	162,890	20%	24%	5.76	
	LIG넥스원	63,498	64,787	56,175	66,155	66,201	66,607	66,607	66,690	66,890	66,890	21%	25%	8.88	
기타	한화시스템	14,299	14,299	14,282	14,059	14,015	14,036	14,043	14,043	15,304	15,304	7%	8%	3.91	
	현대로템	24,642	24,764	24,912	25,380	25,474	25,408	25,560	25,560	25,560	25,560	28%	31%	7.59	
	현대엘리베이터	0	0	35,782	35,782	35,782	35,782	39,414	39,414	39,414	39,414	22%	23%	2.13	
	성광벤드	21,619	21,000	21,228	22,155	21,956	21,579	21,579	21,579	21,579	21,579	8%	9%	1.45	
피팅	태광	23,480	23,633	23,633	23,633	23,633	22,839	22,839	22,839	22,839	22,839	7%	7%	0.97	
	하이룩코리아	38,403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37,176	10%	11%	0.7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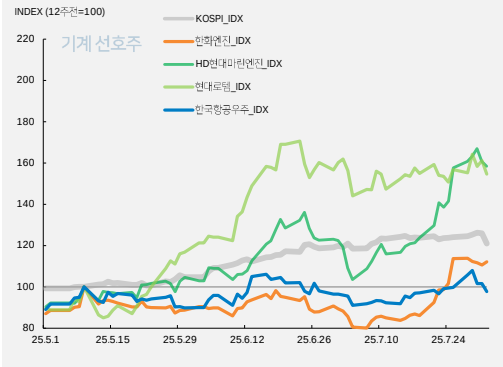
2025.08.03 [782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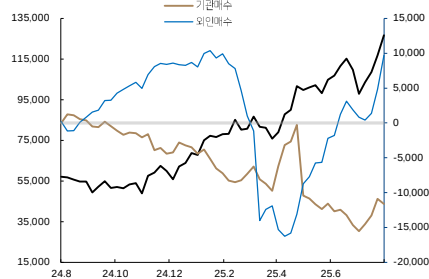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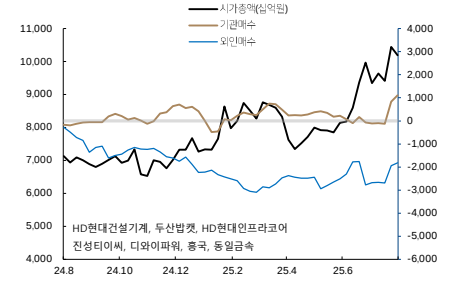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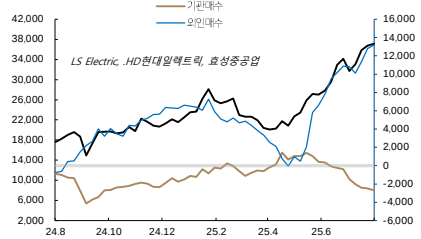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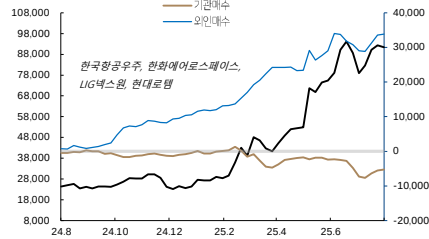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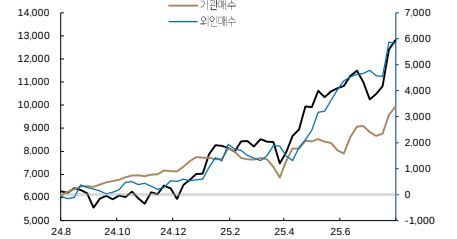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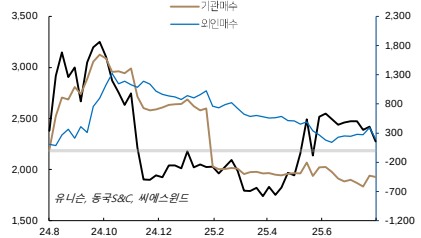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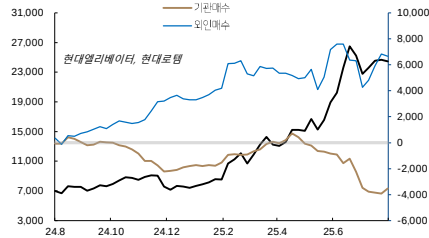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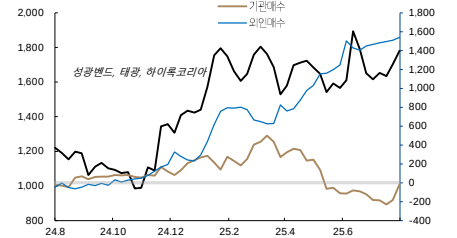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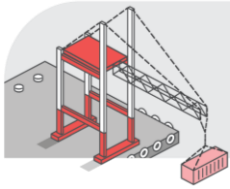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5.08.03 [782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148	-2.9%	3.8%	35.6%	56%	133%
	HD현대인프라코어	2,104	2.1%	15.1%	86.0%	98%	174%
	두산발켓	3,663	-4.5%	-6.5%	14.6%	34%	69%
	CATERPILLAR	201,619	-1.2%	7.6%	39.9%	34%	131%
	KOMATSU	31,604	-9.0%	5.3%	21.8%	26%	74%
	HITACHI CM	6,585	-2.5%	6.9%	11.0%	32%	59%
중형	VOLVO	57,335	-4.9%	0.8%	3.7%	5%	52%
	SANY	23,306	-0.8%	8.7%	3.6%	26%	20%
	XCMG	13,596	-2.5%	2.7%	-7.8%	31%	49%
소형	DEERE	135,679	-3.2%	-3.7%	9.1%	42%	46%
	CNHI	15,580	-6.3%	-9.4%	7.1%	26%	-1%
	TAKEUCHI	1,800	3.4%	17.5%	22.4%	29%	117%
	TEREX	3,212	-6.4%	-1.9%	36.2%	-10%	44%
	SUMITOMO HI	2,834	5.1%	12.1%	12.0%	-7%	13%
	SANDVIK	30,209	-4.6%	4.6%	14.7%	13%	36%
	UNITED RENTALS	55,309	-3.4%	9.1%	35.7%	28%	166%
	다와이퍼워	105	-3.4%	1.3%	11.7%	0%	9%
부품	진성티이씨	186	-5.2%	3.0%	27.3%	30%	14%
	우림기계	50	-0.6%	1.6%	-2.9%	-23%	-46%
	홍국	45	-2.5%	-4.3%	-1.0%	-2%	-26%
	동일금속	53	-3.1%	-3.1%	0.8%	-11%	-60%
	KUBOTA	13,313	-0.2%	4.9%	3.2%	-12%	-19%
	가야바	1,133	2.3%	10.1%	15.3%	35%	114%
	Hengli	13,638	-3.3%	4.9%	1.9%	6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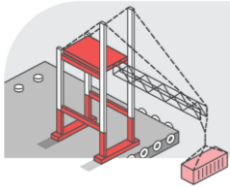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6,376	-2.0%	1.7%	10.2%	65%	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4,844	-0.6%	14.7%	15.7%	219%	1345%
	LIG넥스원	9,373	-1.0%	13.2%	90.0%	200%	567%
	한화시스템	8,144	4.9%	7.3%	49.4%	217%	312%
	아스트	186	-1.8%	15.8%	13.2%	6%	-88%
	퍼스텍	150	-6.6%	11.3%	17.9%	36%	6%
	하이즈항공	30	-21.7%	16.2%	43.9%	3%	-48%
	오르비텍	73	-5.3%	-13.7%	50.5%	44%	-47%
방산/항공	Boeing	167,791	-4.8%	4.7%	24.7%	31%	34%
	Airbus	154,594	-6.2%	-3.5%	20.3%	28%	61%
방산	LOCKHEED MARTIN	98,291	0.0%	-9.0%	-11.9%	-23%	-1%
	Raytheon Technologies	209,897	0.0%	8.5%	25.2%	35%	69%
	Northrop grumman	83,968	2.9%	17.5%	23.9%	19%	23%
	GENERAL DYNAMICS	83,587	-1.0%	5.7%	14.3%	6%	36%
항공	BOMBARDIER	11,911	0.5%	11.4%	80.5%	100%	442%
	EMBRAER	10,522	18.8%	-4.3%	26.9%	106%	1450%
항공 부품	ROLLS ROYCE	119,108	9.0%	12.9%	41.0%	130%	1183%
	SAFRAN	137,019	1.0%	5.3%	21.8%	47%	164%
	SPIRIT AERO	4,588	-4.6%	1.7%	12.1%	14%	29%
	TRIUMPH	2,021	0.0%	1.1%	2.8%	67%	80%
	MHI	82,225	0.8%	2.8%	31.1%	133%	676%
	KHI	12,717	3.1%	7.0%	33.3%	136%	323%
	FHI	13,954	-1.0%	13.7%	7.7%	6%	18%
	IHI	17,966	6.5%	14.4%	58.1%	248%	407%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363	-7.0%	-5.9%	17.8%		-10%	-23%
	SK오션플랜트	838	-2.2%	-4.2%	26.7%		53%	-25%
	세진중공업	542	10.9%	18.0%	51.0%		57%	91%
	유니슨	217	3.2%	-19.3%	2.2%		86%	-42%
	동국S&C	108	-5.8%	-10.3%	8.7%		-2%	-63%
	태웅	534	-6.0%	21.8%	36.6%		132%	260%
	VESTAS	18,341	-6.4%	11.7%	35.0%		-29%	-40%
	GOLDWIND	5,385	-1.3%	-5.1%	16.1%		26%	-33%
	NORDEX	5,899	6.3%	26.1%	35.6%		69%	109%

중전기	LS Electric	6,315	1.7%	3.0%	52.1%	72%	429%
	효성중공업	7,844	3.9%	24.6%	154.4%	317%	1792%
	HD현대일렉트릭	12,556	-1.0%	-0.7%	61.6%	76%	1730%
	ABB	122,332	0.7%	13.7%	23.7%	20%	95%
	Schneider	142,445	-9.5%	-4.4%	-1.8%	5%	62%
	WEG	28,121	2.8%	-12.4%	-25.5%	-25%	29%
	Crompton Greaves	2,371	-2.4%	-7.5%	-4.1%	-27%	-14%
	TBEA	9,413	-4.5%	9.0%	15.7%	0%	-28%
피팅	성광벤드	598	2.1%	4.9%	10.8%	115%	175%
	태광	422	10.2%	13.1%	2.1%	31%	68%
	하이록코리아	261	2.1%	0.5%	1.0%	7%	65%
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28,304	-6.8%	-0.3%	120.1%	247%	226%
	비메이지차이	826	-8.4%	-4.6%	70.2%	345%	399%
	S&TC	683	-10.9%	22.2%	32.9%	264%	722%
	DONGFANG	9,196	-5.2%	17.8%	30.2%	26%	25%
	BHEL	9,246	-3.6%	-11.1%	4.4%	-23%	348%
	MHI	82,225	0.8%	2.8%	31.1%	133%	676%
	IHI	17,966	6.5%	14.4%	58.1%	248%	407%
	SIEMENS	197,225	-6.2%	-2.5%	2.8%	35%	96%
	General Electric	285,661	-0.8%	10.1%	35.8%	68%	482%
	ALSTOM	10,569	-9.9%	1.0%	-4.4%	1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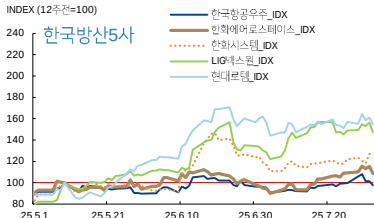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5,238	-1.4%	-4.4%	70.6%		300%	687%
	ALSTOM	10,569	-9.9%	1.0%	-4.4%		16%	-11%
	Bombardier	11,911	0.5%	11.4%	80.5%		100%	442%
	CNR	58,143	-2.6%	-11.6%	-4.9%		-18%	-22%
	CAF	2,061	-4.4%	10.4%	24.5%		50%	100%
	CSR	27,734	-4.6%	12.2%	15.4%		6%	90%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358	2.3%	0.1%	16.6%		94%	189%
	KONE	32,486	-1.8%	-4.1%	4.9%		13%	26%
	THYSENKRUPP	7,099	-10.0%	5.8%	-0.1%		188%	64%
	MITSUBISHI ELEC.	49,975	5.7%	13.5%	32.1%		59%	154%
	HITACHI	132,739	-7.2%	3.3%	14.4%		38%	222%
	SHANGHAI ELEC.	15,020	-4.8%	11.1%	28.0%		109%	72%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50	-2.8%	-4.8%	8.7%		6%	-9%
기타	와이지원	136	-2.3%	-7.7%	-6.5%		0%	-23%
	S&T중공업	1,366	9.2%	5.7%	68.7%		157%	589%
	Amada	3,811	1.3%	8.6%	21.6%		10%	61%
	Moriseiki	3,275	-3.9%	5.7%	36.3%		3%	89%
	Jtekt	2,812	1.8%	8.8%	16.1%		31%	35%
	Okuma	1,900	5.1%	13.8%	30.4%		26%	57%
	Makino	1,926	0.1%	0.3%	-0.1%		104%	155%
	Gildemeister	4,193	-0.2%	0.7%	-0.2%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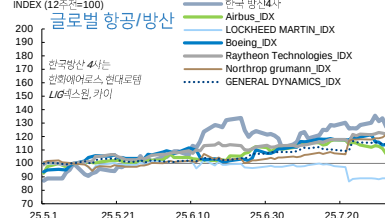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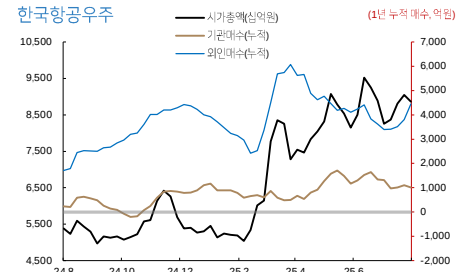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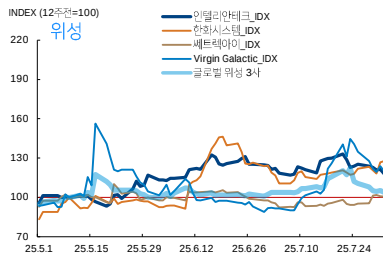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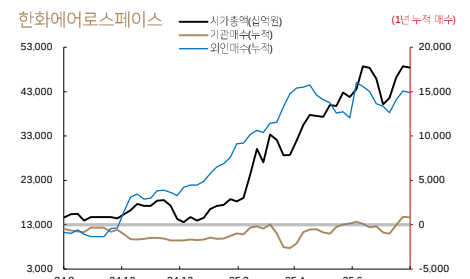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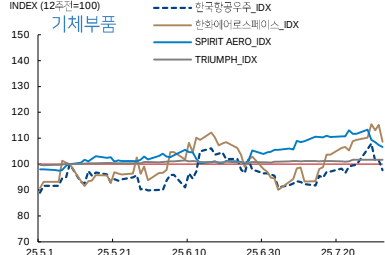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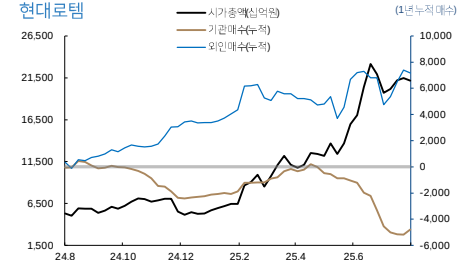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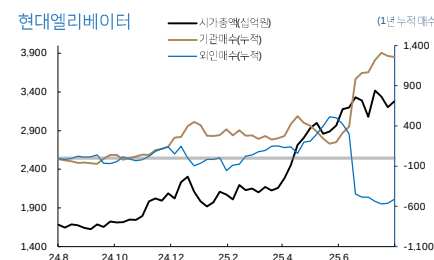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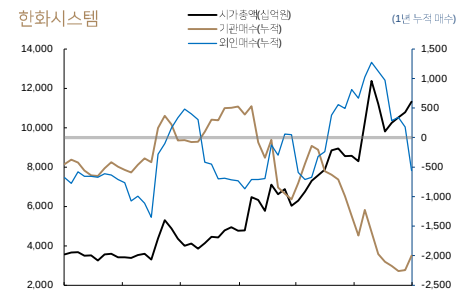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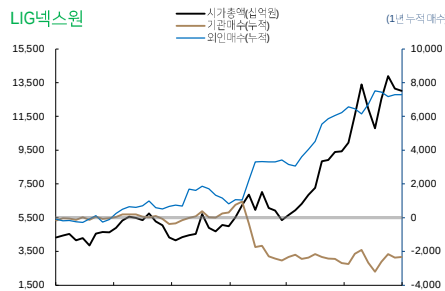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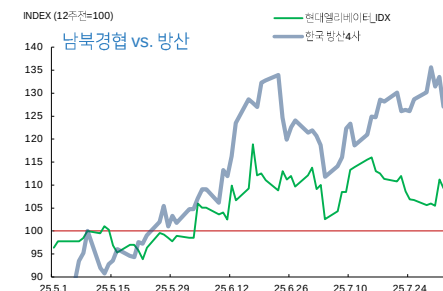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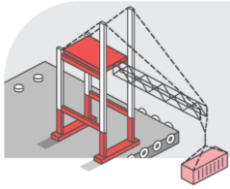


항공부품주



방산 vs. 경협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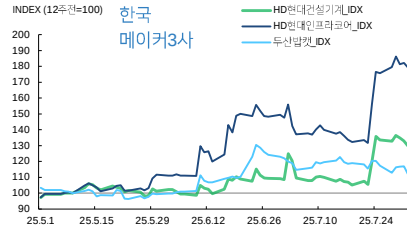
2025.08.03 [782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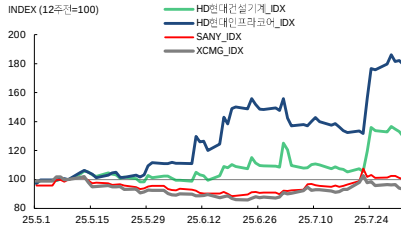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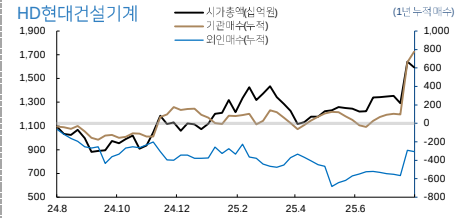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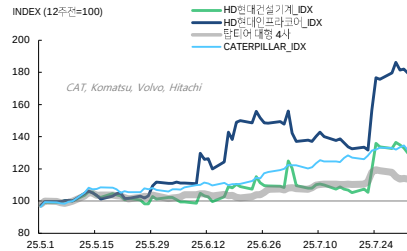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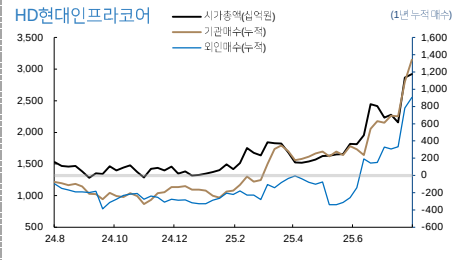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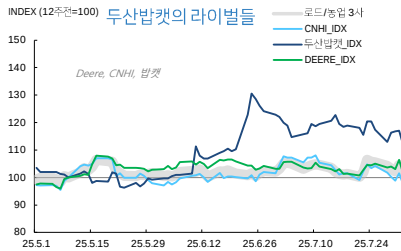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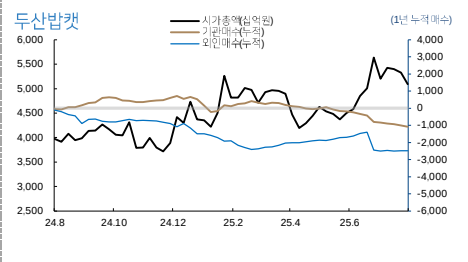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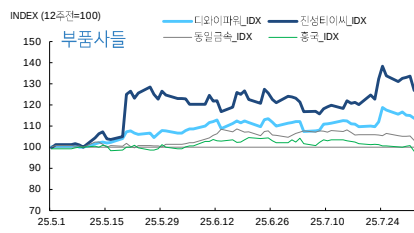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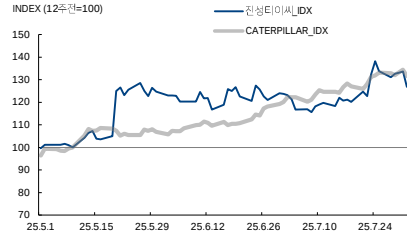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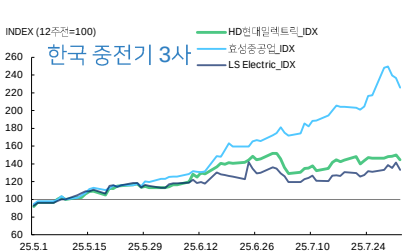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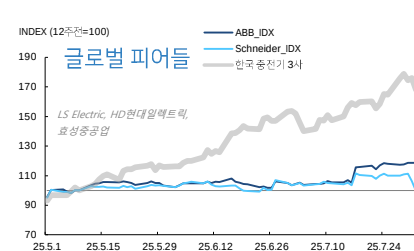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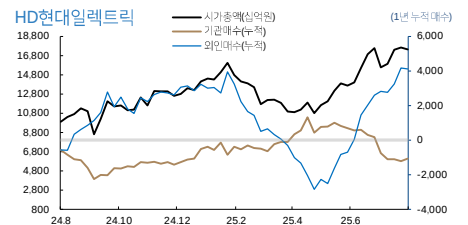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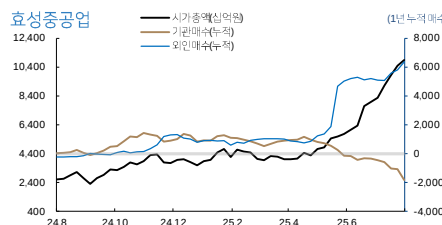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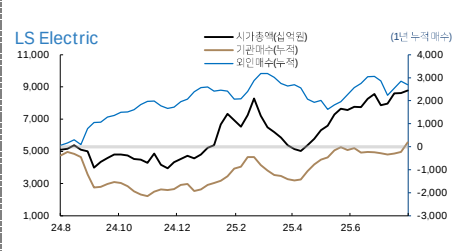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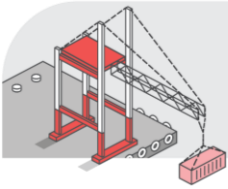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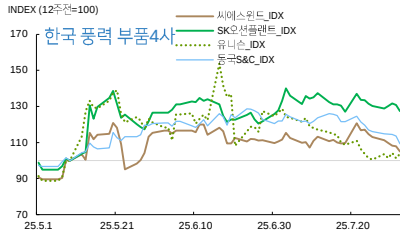
2025.08.03 [782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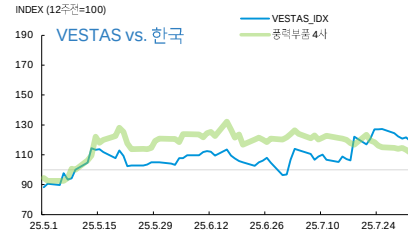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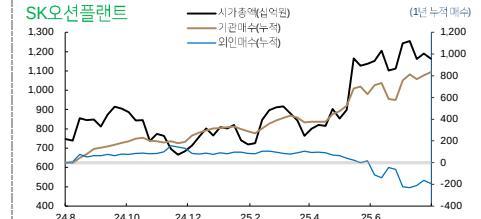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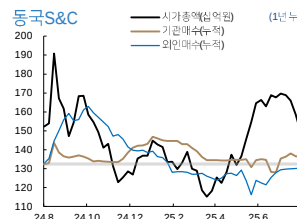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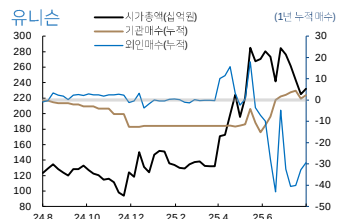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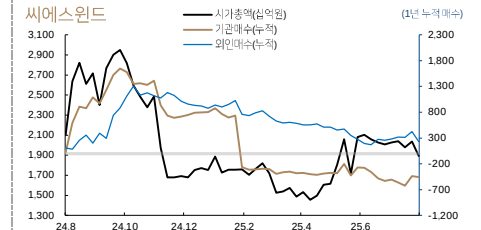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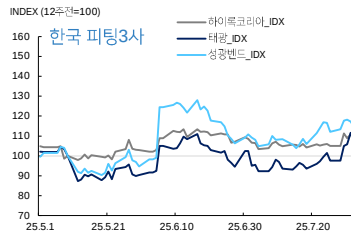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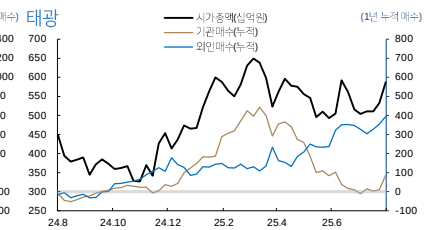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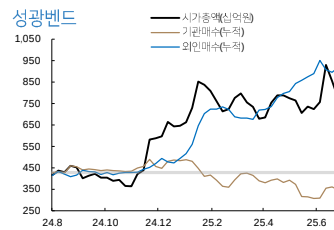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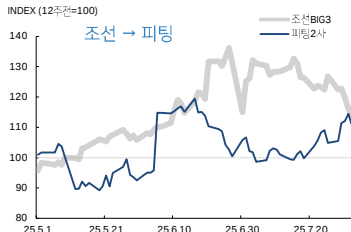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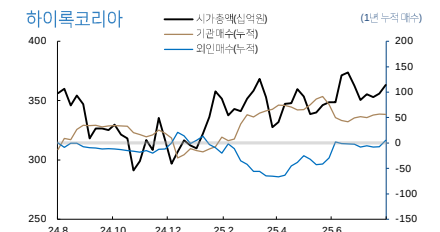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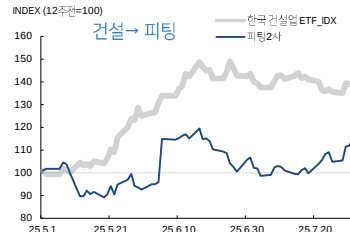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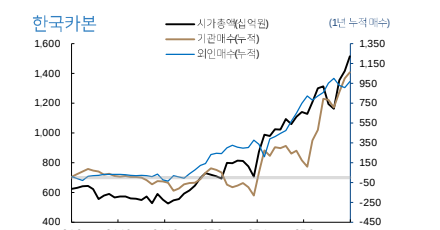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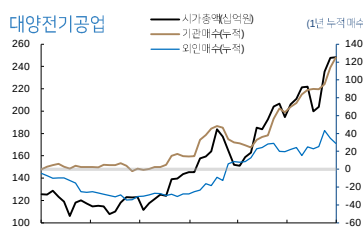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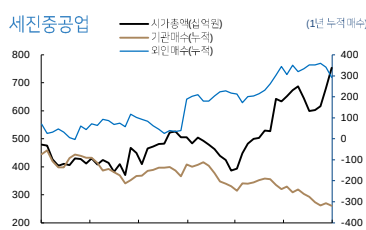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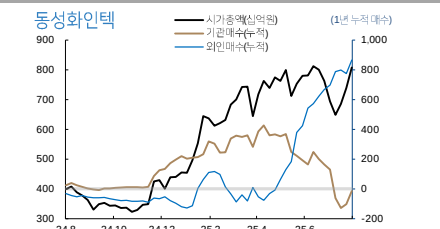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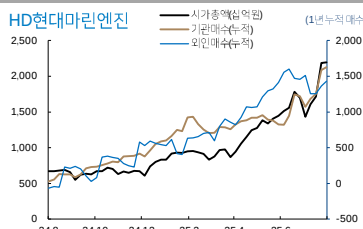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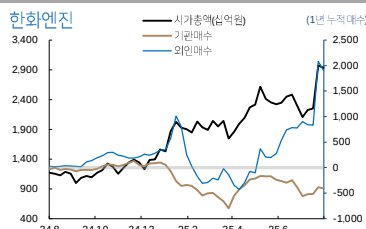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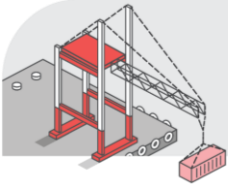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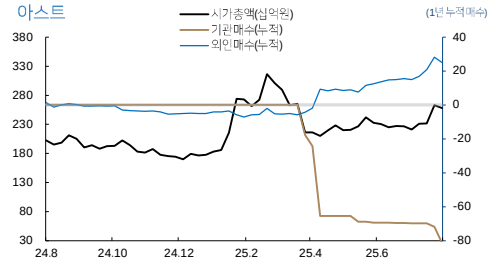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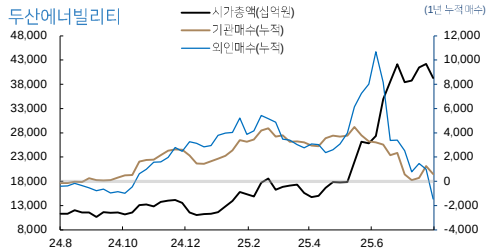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90.9% **HOLD : 9.1%**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